

# 아버지의 ★ 해방일지



정지아  
장편소설



창비  
Changbi Publishers



아버지는 지리산과 백운산을 카빈 소총을 들고 누빈 빨치산이었다. 그는 일제강점기가 끝난 직후 평등한 세상을 꿈꾸며 싸웠으나 처절하게 패배했다. 동지들은 하나둘 죽었고, 아버지는 위장 자수로 조직을 재건하려 하지만 그마저 실패했다. 그럼에도 아버지는 자본주의 한국에서 평생을 사회주의자로 살았다. 평등한 세상이 올 거라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고, 생판 초면인 이들의 어려움도 무시하지 않았다. '나'는 그런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조금 우스꽝스럽게 생각한다. 누구나 배불리 먹고 차별없이 교육받는 세상이 이미 이뤄진 마당에 혁명을 목전에 둔 듯 행동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누가 봐도 블랙코미디에 가깝기 때문이다. 그렇게 평행선을 달려온 '나'와 아버지. 그런 아버지가 죽었다. 노동절 새벽, 전봇대에 머리를 박고.

이 이야기는 크게 네 줄기로 이뤄진다. 첫번째는 아버지와 평생을 반목해온, 그의 동생인 작은아버지와의 이야기다. '빨갱이' 형 때문에 집안이 망했다고 생각하는 작은아버지는, 형의 죽음을 알리는 전화를 대꾸도 없이 끊을 만큼 냉담하다. 평생 술꾼으로 산 작은아버지는 이따금 집에 찾아와 "니는 그리 잘나서 집안 말아먹었냐?"(38면)라며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 그때마다 아버지는 맞서지 않고 묵묵부답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차라리 작은아버지가 장례식장에 나타나지 않기를 바란다. 그의 등장 여부는 장례식장에 모인 모두의 관심사인

한편, 독자들도 책을 읽는 내내 흥미진진 궁금하게 지켜보게 된다. 죽은 아버지와 산 작은아버지는 화해할 수 있을까.

두번째는 구례에서 아버지가 사귀어온 친구들의 이야기다. 이들의 면면은 실로 다양하고 입체적이라 살펴보는 것만으로 한편의 시트콤을 보는 듯하다. 아버지의 소학교 동창이자 시계방을 운영하는 박선생. 그는 평생을 군인과 교련선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대척점에 있지만 아버지의 둘도 없는 친구다. 정치적 지향 차이로 발생하는 두 노인의 투닥거림은 어딘지 귀엽고, 그 끝에 “그래도 사램은 가가 젤 낫아야”(47면)라는 말은 지금의 정치권이 배웠으면 싶은 생각도 든다. 그리고 이 장례식에 어울리지 않게 등장한 샛노란 머리의 소녀. 어찌된 영문인지 그는 아버지의 “담배 친구”(139면)란다. 열일곱살 소녀와 허물없이 친해지는 것은 아버지이기에 가능한 일이지만, 그 와중에도 어머니가 베트남인인 소녀에게 ‘미 제국주의’ 운운하는 것을 잊지 않는 아버지의 캐릭터는 여전히 웃음을 자아낸다. 그밖에 ‘학수’를 비롯해 아버지의 아들을 자처하는 많은 사람들, 총부리를 맞서고 싸웠지만 이윽고 친구가 된 웃지 못할 사연들이 속속 등장한다.

세번째는 ‘나’와 아버지의 이야기다. 『아버지의 해방일지』의 가장 큰 줄기는 ‘빨치산의 딸’로 힘들게 살아온 딸이 아버지를 이해하는 과정이다.

사회주의자이고 혁명전사였기에 생활력은 없었고, 그런 주제에 “보증을 서”(57면)주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기에 늘 가난했던 집안 형편은 전부 아버지 탓이었다. 시도 때도 없이 아버지가 늘어놓는 장광설은 지금 현실과는 맞지 않았고, 그런 만큼 ‘나’는 아버지가 있는 고향을 떠나고 싶어했다. 그런데 아버지의 죽음 이후 ‘나’는 내가 알던 아버지의 얼굴이 아주 일부였음을 깨닫는다. 아버지의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면들이 밝혀지고, 사람들을 감화시킨 담대한 모습들도 드러난다. 무엇보다 내가 잊고 있었던, ‘나’를 사랑했던 순간순간들이 떠오른다. 마침내 ‘나’는 아버지의 유골을 손에 들고, 아버지를 가장 아버지다운 방식으로 보낼 한가지 결심을 한다.

마지막 네번째는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의 일화들이다. 이들은 서사의 무게를 한층 발랄하게 만들며 독자들의 웃음을 자아낸다. 평생의 동지이자 그 역시 사회주의자였던 어머니는 아버지보다는 현실적이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런저런 일로 늘 구박을 받는다. 옷을 털지 않아서 술 담배를 끊지 못해서 같은 비교적 소소한 일도 있고, 빚보증을 서서 농사를 내팽겨쳐서 같은 큰일도 있다. 어찌 보면 앙숙 같은 이들은 ‘유물론’과 ‘민족’ 앞에서 경건하게 하나가 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우스꽝스러운 ‘티키타카’는 아버지의 삶을 이해하는 유쾌한 촉매제가 되어준다. 책의 제목이자 주인공이기도 한 아버지. 그러나 줄거리는 주인공이 죽고 나서야 시작된다. 이 책의 첫 문장이 이렇다.

<아버지가 죽었다. 전봇대에 머리를 박고. 평생을  
정색하고 살아온 아버지가 전봇대에 머리를 박고  
진지일색의 삶을 마감한 것이다.>

작중 화자이자 '아버지'의 딸인 아리는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 담담하면서도 냉소적인 말투로 운을 댄다.  
첫 문장을 읽고 나서, 이 책의 장르는 아버지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되는 블랙 코미디임이 확실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작중 인물들의 리얼한 방언에서는  
시골마을 구례의 정감이 느껴지는 듯 했으며,  
초반부에서 자칭 사회주의자라는 칭호가 무색하게  
노동과는 거리가 멀었던 아버지를 우스꽝스럽게  
묘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아리가  
아버지의 죽음 이전까지 가지고 있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이자 독자에게 처음 비춰진 아버지의  
이미지였다. 그러나 아리의 시선을 따라가며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는 점차 변화하기 시작한다. 블랙코미디인  
줄 알았던 장르도 아버지의 삶을 그린 다큐멘터리로  
변모한다. 작가는 독자들이 '아버지'라는 사람에 대한  
이미지를 아리와 공유하고 그 변화 과정을 따라갈 수  
있도록 플롯을 구성해놓은 듯 했다.

아버지의 장례식이 시작되고 조문객들이 하나 둘 찾아오기 시작한다. 아버지의 절친한 친구, 함께 투쟁에 참여했던 동지들, 담배를 피우다 만난 다문화 가정의 어린 소녀 등 다양한 조문객들과 아버지 사이에 엮인 이야기 속에서 아리는 스스로 인지하지 못했던 아버지의 또 다른 자취를 발견한다. 민주주의 사회 속에서 빨치산이라는 타이틀은 아버지 뿐 아니라 아리와 아버지의 주변 사람들에게 까지 영향을 미쳤고 죽는 그 순간 까지 아버지를 따라다녔다. 그리고 아버지는 죽은 그 순간 자신을 움아맸던 빨갱이라는 꼬리표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다. 빨갱이가 아닌, 그저 누군가의 아버지이자 연인이고 누군가에게 절친한 친구, 동지였던 아버지를 아리는 3일간의 장례식 동안 마주하게 되고 그렇게 아리는 아버지를 조금 더 알아가기 시작한다.

장례식장을 가 본 지가 꽤나 오래되었다. 어렴풋한 어린 시절의 기억에 따르면 장례식장은 웃음과 슬픔이 공존하는 곳이었다. 떠나간 사람을 떠올리며 한참을 슬퍼하다가도, 그 슬픔을 잠시 잊고 과거의 이야기를 안줏거리 삼아 떠들 수 있는 오묘한 공간이었다. 거기에 고인이 생전에 연을 맺었던 사람들을 통해 고인의 삶을 간접적으로 들여다 볼 수 있다는 이 책의 설정은, 죽음으로 인해 그저 무겁게 느껴지던

장례식장이라는 공간에 인간다움과 따뜻함을 한 스푼 더하는 듯하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옛말은 얼핏 들으면 죽기 전까지 길이길이 이름을 남길 만 한 업적을 이루어야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기 쉽다.그러나 생각해보면 우리는 매일 마주하는 이들에게 우리의 이름을 남기고 있었다. 그것이 좋은 의미이든, 나쁜 의미이든. 아버지의 해방일기라는 소설은 나로 하여금 세상에 어떤 방식으로 이름을 남기고 갈 것인가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하는 책이었다. 다들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내가 죽으면 장례식장에 누가 와줄까?" 이 책을 읽고 나니 훗날 내가 '해방되어' 이름만 남기고 떠났을 때, 남겨진 이들이 떠올린 기억이 따뜻했으면 하는 바람이 생긴다. 읽을 땐 가볍게 읽을 수 있지만 덮고 나니 꽤 긴 여운을 남겨주는 책이었다.

2013년 4월15일이었다. 정지아 소설가와 깊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다음 작품으로 '3일 동안의 아버지의 장례식' 이야기를 쓰고 있다고 했다. 200장쯤 썼다가 다시 지우고, 또다시 쓰고를 네 번쯤 반복하고 있다고도 했다.

오창은 문학평론가·중앙대 교수

<아버지의 해방일지>는 10년 넘게 궁리하고 애써 쓴 역작이다. 힘을 들이면 무거워지기 마련인데, 이 소설은 '경쾌한 깊이'로 발랄하게 빛난다. 전직 빨치산이자 뺑속까지 사회주의자였던 '고상욱'의 장례식이 소설의 중심 서사다. 대학 시간강사인 딸 '고아리'가 문상객들을 맞으면서 '몰랐던 아버지의 삶'을 하나하나 발견해나간다는 이야기다. 고상욱은 1948년에 입산한 구빨치산이고, 1952년에 위장 자수한 사회주의자였다. 1974년 즈음에 다시 투옥되어 6년여 동안 감옥살이를 한 이력도 있다. 견고한 이데올로기 중심주의자처럼 보였던, 딸 아리의 인생을 망쳤던 아버지의 행적은 하루하루 장례를 치를수록 채로운 모습으로 바뀐다. 미스터리적 기법을 활용하면서도, 훈훈한 민중주의적 정서를 보듬은 소설의 서사가 몰입도를 높여준다.

<아버지의 해방일지>를 깊이 읽기 위해 우선 시간에 집중해 보자. 이 소설은 3일 동안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1948년부터 1952년, 1980년대 초중반, 그리고 21세기 초반의 시간이 공존한다. 고상욱은 곡성군당위원장이었고, 서툰 농부였다가, 구례읍내 고층아파트 관리인이기도



했다. 고아리는 어떠한가? 아빠와 엄마의 빨치산 시절 이야기를 듣는 역사의 수신자였다가, 고교 시절 '하염없이' 부모를 원망하는 반항아로 변했고, 이제는 만상제로서 아버지의 인연들을 감당해야 하는 처지에 있다. 소설 속 공간도 중요하다. '삼림조합 장례식장'이 중심 공간으로 설정되어 있지만, 이야기는 반내골과 구례읍내로 확장된다. 구례사람들이 고상욱을 추모하기 위해 모여들면서 각자가 마음속에 품고 있던 감사, 회한, 원망, 분노의 감정들이 뒤섞여 용광로처럼 들끓는다. 이 설정은 20세기 한국현대사가 여전히 조심스러워하는 '빨치산의 서사를 현재화'하기 위한 포석이다. 소설 속 다채로운 사건은 시간과 공간의 압축과 펼쳐짐이라는 설정 때문에 가능해진다.

지리산 자락 구례사람들의 다양한 사연들이 서사의 중심을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상욱의 '삼오동창모임'과 구례읍내에서 맺어온 인연들은 정서적 공동체의 정감 어린 풍경 묘사로 이어진다. 장례식을 치르는 데 큰 힘을 보탰던 황 사장과 떡집 언니의 사연도 인상적이다. 그들은 빨치산 후손들이다. 소설 속 세세한 사건들도 눈길을 끈다. 큰집 길수 오빠가 육군사관학교에 합격하고도 연좌제로 삶의 궤적이

바뀐 이야기, 한국전쟁 발발 직전 스물셋의 순경이었다가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살아난 '그'의 이야기가 그 예이다. 그리고 작은아버지의 피폐한 삶도 안타까움을 더해준다. 전 생애를 바쳐 청년 시절의 선택에 대해 책임지려 했던 고상욱의 모습도 삶의 한 풍경이라면, '가마니처럼 얹드려' 살아온 '길수 오빠나 작은아버지, 황 사장과 떡집 언니'의 삶도 소설의 색감을 다채롭게 하는 데 결정적 기여를 한다. 정지아의『아버지의 해방 일지』를 읽고 나면 싱겁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한 시대의 모순을 온 몸으로 막아내고자 몸부림 친 영웅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박진감 넘치는 서사가 펼쳐지는 것도 아니어서 실망감마저 있다. 실패한 인생의 그저 그런 이야기인 것이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이 소설인 까닭이다. 소설은 문제적 인간의 패배에 대한 기록이며 우리는 그 패배에서 교훈을 얻기 마련이다. 아버지는 좋은 세상을 꿈꾸며 빨치산이 되어 현실에 역류하다 오랜 수감 생활을 한다. 하지만 동지였던 장기수들과 달리 아버지는 자수를 했기에 일정 형기를 마치고 고향인 구례로 돌아온다.

아버지는 여느 농부들처럼 농사에 매진한다. 유물론자로서 관념적으로는 투철하지만 일상은 그렇지 않다. 집안일이나 농사일이나 서투르기 그지없다. 노동 중심의 이데올로기 신봉자로서 낙제가 아닐 수 없다. 아버지는 심지어 초등학교 동창들과 선술집에 출입하며 주모의 엉덩이를 만지기까지 한다. 성을 상품화하는 자본주의에 저항은커녕 무릎을 꿇은 것이다.

빨치산에게 일상은 이처럼 뛰어넘기 힘든 벽이다. 하지만 그에게 일상은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얹히고설켜 있는 인간 관계망이다. 농사일 하다 동네 사람이 도움을 요청하면 즉각 현장으로 달려간다. 척추 협착증이 있는 빨치산 출신의 아내 지청구에 그런 정신으로 어떻게 혁명을 했느냐고 큰소리치며 교통사고 민원을 처리해 준다. 환자에게는 감옥에서의 인맥을 활용해서 의사를 소개시켜 주고, 무직인 청년에게는 직장을 알선해주기도 한다.

아버지는 자신의 돈을 써가며 동네 사람들 궂은일을 도맡아 처리하지만 단 한 푼의 사례를 받은 적이 없다. 막걸리 한 통 사들고 오는 사람이 없어도 매번 "궁게 사람이제. 사람이니 실수를 하고 사람이니 배신을 하고 사람이니 살인도 하고 사람이니 용서도 한다"며 껄껄

웃고 만다. 이런 성정은 여고생과 스스럼없이 친구로 지내게 한 요인이다. 베트남 출신 어머니 때문에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그에게 "네 어머니 나라는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미국을 이긴 위대한 나라이니 자부심을 가지라"고 말하기까지 한다.

빨치산 아버지는 좌우를 가리지 않고 어울린다. 주변에 이념을 강요하지 않는다. 누군가 도움을 요청하면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서 돕고, 그게 여의치 않으면 위로해주고 응원한다. 혁명 영웅이 아니라 따스한 한 이웃일 뿐이다. 켄 로치 감독의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 주인공인 다니엘 블레이크와 다를 바 없다. 목수로 살았던 그의 절규는 마치 빨치산 아버지의 절규로 들린다. "난 책임을 다해 떳떳하게 살았습니다. 이웃이 어려울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한 그들을 도왔습니다....나, 다니엘 블레이크는 한 사람의 시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아버지의 해방 일지』는 작가인 정지아 씨 부모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소설이지만 80년대 중반 이후부터 쏟아져 나온 빨치산 문학과는 감성과 메시지가 전혀 다르다. 지난 시절에는 빨치산의 존재와 이데올로기를 알리는데 치중했다면 이 소설은 일상 속에서 구체적 삶을 산 빨치산의 모습을 가감 없이 그렸다. 개성이

있는, 친절한 이웃, 훌륭한 시민으로서의 모습. 이 모습이 우리 시대의 감성이자 철학이며 동시에 사회적 의미가 아니고 무엇인가?

정지아 작가의 부모는 모두 빨치산 출신이고 『아버지의 해방일지』에는 ‘빨치산의 딸’로 산 작가의 경험이 담겼다. 주인공은 작가처럼 빨치산의 딸로 태어났고, 주인공의 아버지는 작가의 아버지처럼 “뺨속까지 사회주의자”인 인물로 그려진다.

대학 강사인 주인공은 빨치산의 딸이라는 굴레를 씌어준 아버지에게 심리적 거리를 두고 살았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죽음이 주인공에게는 더욱 황망하기만 하다. 뭘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당황스럽기도 하다.

그런데 경험이 없어 더 경황없는 장례 절차를 아버지와 가깝게 지낸 이들이 알아서 처리한다. 주인공과 전혀 안면이 없는 문상객들도 찾아와 아버지와 인연을 밝히며 고인을 추모한다. 그들의 입을 통해서 주인공은 딸이 알지 못했던 아버지의 평소 모습을, 평등을 실천하며 사회주의자로 살고자 한 아버지의 숨겨진 모습을 알게 된다.

그중에서도 한 조문객과 아버지가 맺은 특별한 인연이

주인공에게도 특별하게 다가온다. 여고생 또래로 보이는 머리를 샛노랗게 물들인 소녀가 “담배 친구”라며 문상하러 온 것. 어머니가 베트남 출신이고 학교에 적응하지 못한 자기에게 “엄마 나라는 전세계에서 미국을 이긴 유일한 나라”라고 위로하던 “할배”가 친구였다는 고인을 진심으로 추모했다.

소설에서 이 아이는 여러 대목에 등장하는데 그때마다 “할배”가 자기는 물론 가족까지 도와줬던 사연들을 털어놓는다. 주인공은 평소 타인의 도움 요청에 발 벗고 나서는 아버지를 탐탁지 않게 생각했었지만,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사람을 만나자 아버지를 다시 생각하게 된다.

이렇듯 주인공은 조문객들이 털어놓는 아버지 삶의 조각들을 마치 퍼즐 맞추듯 완성해 나간다. 그렇게 맞춘 퍼즐은 아버지가 살아온 우리나라 현대사의 한 단면을 보여주기도 했다.

고인이 겪어온 역사를 만날 수 있는

『아버지의 해방일지』는 빨치산의 장례식장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인간 군상들을 그려냈다. 뺨속까지 사회주의자답게 청춘을 함께한 “빨치산 어른들”, “

감옥에서 출소한 아버지가 이 세상과 어우러지며 만든 인연들"까지 장례식장에 문상을 왔다. 진보 진영 정치인들은 조화를 보냈다.

하지만 평소 주인공의 아버지를 증오했던 이가 장례식장을 찾아와 소란 피우기도 한다. "빨갱이가 죽었응게 박수를 쳐야 마땅"하다면서. 아버지가 평생을 살아온 지리산 일대는 빨치산 출신들은 물론 그들의 반대편에 섰던 이들까지 함께 살아온 지역이기도 하다.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는 인물이 '박선생'이다. 아버지와 박선생은 초등학교 동창으로 어릴 때부터 막역했다. 하지만 이념이 두 사람의 운명을 갈랐다. 박선생의 형과 주인공의 아버지는 입산해 빨치산이 되었고 서울에서 학교에 다니던 박선생은 국군이 됐다.

박선생은 공교롭게도 형과 친구를 죽여야 할지도 모르는 토벌대로 지리산에서 근무했다. 그래서 "그 누구도 내 총에 죽는 일만 없기를" 날마다 기도했다. 하지만 박선생의 형은 지리산에서 죽었다. 전쟁 후 교련 선생으로 지내다 정년퇴직한 박선생은 자신의 총알이 형을 죽였을지도 모른다는 자책감을 안고 사는

인물이다.

이토록 삶의 궤적이 다른 박선생과 주인공의 아버지는 말년에 매일 만나며 교유했다. 그런데 아버지는 한겨레신문을, 박선생은 조선일보를 구독하는 등 서로의 신념이 명확히 달랐던 두 사람의 우정이 주인공은 이해되지 않았다. 다만 “(아버지에게는) 사상과 사람이 다른 모양이었다”며 주인공은 아버지가 짊어온 삶의 무게를 이해하는 계기로 삼는다.

이렇듯 『아버지의 해방일지』는 좌와 우를 대표하는 문상객들을 장례식장에 배치해 우리나라의 축소판을 보여준다. 이 장면은 마치 어디를 가든지 정치적 소신, 혹은 지역적 특성에 따라 갈라지는 우리나라 사회 곳곳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 같기도 하다.

다만 소설 속 인물들은 우리나라의 보수와 진보 진영처럼 언성을 높여 성토하는 대신 각자의 방식대로 추모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처럼 빨치산의 장례식장은 소설 속에서 묘하게 평화로운 모습으로 묘사됐다.

이런 설정은 『아버지의 해방일지』가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는 순간부터, 그러니까 서로가 다른 점이 있다는



걸 수용하는 순간부터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는 걸 장례식장이라는 공간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 그런 면에서 장례식장은 화해와 용서가 시작되는 공간일지도 모른다.

화해와 용서가 시작되는

『아버지의 해방일지』의 주인공은 아버지에게 심리적 거리를 두며 살았었다. 그녀는 평소 “어떤 딸인지, 어떤 딸이어야 하는지,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고백한다. 대신 “누구의 딸인지가 중요했을 뿐”이었다며 아버지를 원망하는 모습이었다. 신념을 스스로 선택한 아버지 덕분에 “태어나보니 가난한 빨갱이의 딸”이었다고 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죽음은 주인공에게 아버지의 삶, 뱃속부터 사회주의자이고 빨치산 출신임을 숨기지 않았던 아버지의 삶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된다. 조문을 온 타인의 입을 통해 아버지의 몰랐던 모습을 새롭게 보게 되었고, 조금씩 아버지의 삶을 이해하게 된 것이다. 소설은 그렇게 아버지의 죽음으로부터 부녀 관계가 새롭게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죽음은 그러니까, 끝은 아니구나, 나는 생각했다. 삶은 죽음을 통해 누군가의 기억 속에 부활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화해나 용서 또한 가능할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본문 중)

이 독백처럼 주인공에게 아버지의 죽음은 관계의 끝이 아니라 아버지를 새롭게 알게 되는 시작 지점이 됐다. 그리고 주인공은 아버지를 기억하며 화해와 용서를 시도하기로 다짐한다.

『아버지의 해방일지』는 서로에게 부채감이 남아 있다면, 장례식장은 어쩌면 화해나 용서의 공간이 될지도 모른다고 다독여주는 듯하다. 세상은 좌우로 갈려 냉각됐지만 소설은 이렇듯 시대의 온기를 따듯하게 느낄 수 있다.